

##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1)

- 읽을 말씀 계 7:1-8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말세의 징조와 그 징조가 보여주는 세 가지 시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명이 교회 전체가 아닌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십사만 사천 명은 유대인인가 교회인가?

십사만 사천 명에 대해 워치만 니를 포함한 몇몇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하지만, 계시록의 권위자로 알려진 보쿰과 이필찬 교수를 비롯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교회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십사만 사천 명이 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작위적으로 곱하기로 하는 해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 즉  $12 \times 12 = 144$ 이고, 거기에  $\times 1000 = 144,000$ 이라는 이 괴상한 해석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전혀 공감되지 않습니다.

## 2) 이스라엘은 교회를 뜻할 수는 있어도 열두 지파는 교회를 뜻할 수 없다.

성경에 이스라엘이 교회를 가리키는 경우는 몇 군데 있지만(롬 2:29, 갈 3:29, 6:16, 빌 3:3), 이스라엘 각 지파를 교회와 연관 지어 말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각 지파는 결코 교회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지파의 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열두 사도의 이름으로도 분류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열두 지파의 이름으로 분류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 지파에 인 맞은 십사만 사천 명은 문자 그대로 유대인으

로 보는 것 외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3) 십사만 사천은 “처음 익은 열매” 이므로 교회 전체일 수 없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 입니다(계 14:4). “처음 익은 열매” 는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서 항상 소수를 의미했습니다(롬 16:5, 고전 15:20, 16:15). 그러므로 교회 전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필찬 교수님은 예레미야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를 예로 들면서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첫 열매” 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라서 사용한 표현입니다(출 19:5-6).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국가로 삼아 이방인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첫 열매” 도 전체가 아닙니다. 많거나 적거나 간에 하나님의 백성 중 일부를 “첫 열매” 로 표현한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구절을 근거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 가 교회 전체를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첫 열매가 그리스도인 전체를 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는 “**... 흠어져 있는 열 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첫 열매” 는 예레미야 2장 3절에서와 같이 유대인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뿐 아니라 교회 전체로 그 의미가 확장됩니다. 이상근 박사님은 그 이유를 “본문의 ‘피조물’ 은 자연 만물과 인류전체, 즉 하나님의 첫 창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러므로 첫 열매란 모든 신자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첫 열매” 는 협의적으로는 수신자인 유대인 신자들을, 광의적으로는 그들을 포함한 교회전체를 뜻합니다. 광의적인 의미에서 이 구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고후 5:17), 결국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계 21:5). 그래서 야고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첫 열매라고 칭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 도 교회

전체를 뜻할 수 있지 않느냐?” 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1절과의 문맥과 18절의 “그 피조물 중에서” 라는 단서 때문에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계시록 14장 4절은 “열두 지파” (약 1:1)에 대한 것은 7장에 있어도 “피조물 중에서” 라는 단서가 없기 때문에 교회 전체라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처음 익은 열매” 라는 표현은 문맥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해석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교회전체를 의미할 수 없습니다.

① “처음 익은 열매” 를 유대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레미야 2장 3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첫 열매” 는 이스라엘을 뜻했습니다. 물론 “그 피조물 중에” 라는 단서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8절의 “첫 열매” 는 전체 교회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완해주는 것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롬 11:16)**”입니다.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 은 “처음 익은 열매” 이고,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것이 바로 뒤에서 “뿌리” 로 나오고 “가지” 가 뒤에 보면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것을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떡덩이는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것은 그들이 성민으로 성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떡덩이가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것이냐 그 뒤 추수한 것으로 만든 것이냐? 인데 전자입니다. 민수기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15:21)**”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떡 반죽에서 떼 낸 첫 부분을 하느님께 드리면 그 반죽덩어리 전체도 거룩합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가루뿐 아니라 떡도 처음 익은 열매이며, 이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사실들과 계시록 7장 4절의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라는 표현에 근거하여 14장 4절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 가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이스라엘을 “처음 익은 열매” 와 일맥상통하는 “장자” 로 부른 것과도 일치합니다(출 4:22). 구약시대 때는 첫 아들도,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처음 익은 열매” 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 ② “처음 익은 열매” 를 첫 열매로 해석할 수도 있다.

계시록 14장 1절에는 십사만 사천 명이 시온 산 즉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고(3)”,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4)” 이라고 합니다. “사람 가운데에서” 니까 모든 사람이 속량받는 것이 아니고, 전에 땅에서 속량을 받았으나 지금은 하늘에 있으므로 궁극적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장에 있는 십사만 사천은 땅에 있는 교회를, 14장에 있는 십사만 사천은 동시에 하늘에 있는 교회를 뜻한다는 해석은 틀린 것입니다.

십사만 사천이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결과 “처음 익은 열매” 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것을 추수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뒤 14-16절에 보면 곡식추수가 나옵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15)” 혹은 “낮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16)” 는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재림하실 때 산 자들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때 궁극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통해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와 잘 조화가 됩니다. 그러므로 14장에 나오는 “처음 익은 열매” 는 추수에 반하는 용어이며, 전체가 아니라 부분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십사만 사천(1-8)과 휴거한 무리들인 셀 수 없는 큰 무리(9-17)가 나오는데, 14장에도 십사만 사천을 뜻하는 “처음 익은 열매(1-5)” 와 휴거를 뜻하는 곡식추수(14-16)가 나옵니다. 서로 일치합니다. 따라서 처음 익은 열매는 실제로 곡식추수와 관계가 있으므로, “처음 익은 열매” 는 14장에서도 그 본래의 의미대로 전체가 아니라 부분을 뜻합니다. 따라서 계시록 14장 4절의 “처음 익은 열매” 를 유대인으로 보든 첫 열매로 보든 십사만 사천은 전체교회일 수 없습니다.

### ● 나눔과 적용

인침을 받은 십사만 사천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날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이 내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굳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구하고 힘쓰는 것은 어떤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